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전주시, 난방비·미세먼지 저감 위해 올해 3700가구 대상 추진

전주시는 시민의 난방비 부담 해결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LNG 저녹스(低NOx)보일러 교체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고, 난방비도 줄일 수 있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접수를 지난 3일부터 받고 있다.

특히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79%까지 저감시킬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약 10% 높아 교체 시 최대 28% (연간 최대 13만 원)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사업 규모는 3700가구(4억7000만 원)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보조금은 올해 설치되는 보일러에 한해 지원된다.

선정된 가구 대상으로는 일반 3500가구에 최대 10만 원, 저소득층 200가구는 최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주택 소유주와 주택 소유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또는 열량 6만9000kcal 미만인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면 된다. 인증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누리집(eke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신청 전 보일러 판매 대리점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사업 신청은 온라인(www.greenproduct.go.kr/boiler) 또는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도시 상호 홍보협력 위해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도시 상호 홍보협력을 위해 전주를 방문한 시즈오카현 아미모토 아즈마 지역외교국 단장이 지난 3일 전주시청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애인체육복지회관 건립’ 현장 의견 청취

전주시, 지역 장애인단체 차례로 방문해 추진계획 설명·의견 수렴... 체육·교육·복지 원스톱 제공

전주시가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장애인단체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 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자립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발달자사모)과 발달장애인 양성불연주단(노루잡음) 등 전주시지역 장애인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우 시장 공약사업으로 계획되면서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가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장애인단체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부지 7만㎡에 국비 50억 원 등 총 344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5,350㎡의 총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물 1~3층에 들어설 장애인체육복지센터에는 수중운동실과 작은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재활체육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최종증년활동지원센터 등이 갖춰지고, 건물 4층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인 덕진구 장애인복지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민선8기 공약인 ‘전주시 장애

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올해는 함께 건립될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관련 타당성 용역 및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재활과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유도하고, 보다 좋은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완산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전주완산소방서는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체 10,561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 화재는 719건(6.8%)이며, 인명피해는 전체 429명 중 66명

(15.4%)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6년 2월 29일 사업계획 승인 이전 아파트의 경우 의무대상이 아니

므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으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에 설치 권고 및 서한문을 발송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상 현장 컨설팅, 옥상문 피난안내표지 설치 독려’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든든한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앞장’

전주시 완산구, 급여 지원·복지사각지대 발굴 유관기관과 협력 등 복지 구현

완산구는 관내 지역민 위해 견고하며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 구현에 앞장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을 지난 3일 내놨다.

이에 완산구는 올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를 관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타부처·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이 신설,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완산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9개의 타부처사업기관과 정기적인 업무면담을 통해 사업별 매뉴얼을 구성하고, 여기에 사회공헌과 나눔에 관심 있는 민간협력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복지파트너십을 발휘할 전망이다.

특히 완산구는 올해 민간협력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로 ‘생활필수품 구호키트(힘 더하기)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구호키트는 ‘경제위기, 재난상황’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해당 이웃들의 상실감 완화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시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긴급상황에도 변함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체계적이고 든든한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사업설명회 가져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전주시지역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전주시 꿈드림 사업설명회(이하 사업설명회)’를 지난 3일 열었다.

사업설명회는 센터 내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학교 밖 청소년·부모와 사례 담당자와의 만남 시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능동적 참여와 생활계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2023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센터의 역할과 ‘교육·학업복귀지원, 직업훈련직장체험·사회진입지원, 자립지원, 자기계발지원, 건강증진·복지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지원서비스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사례 담당자와의 만남 시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가 평소 궁금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www.jisangdam.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